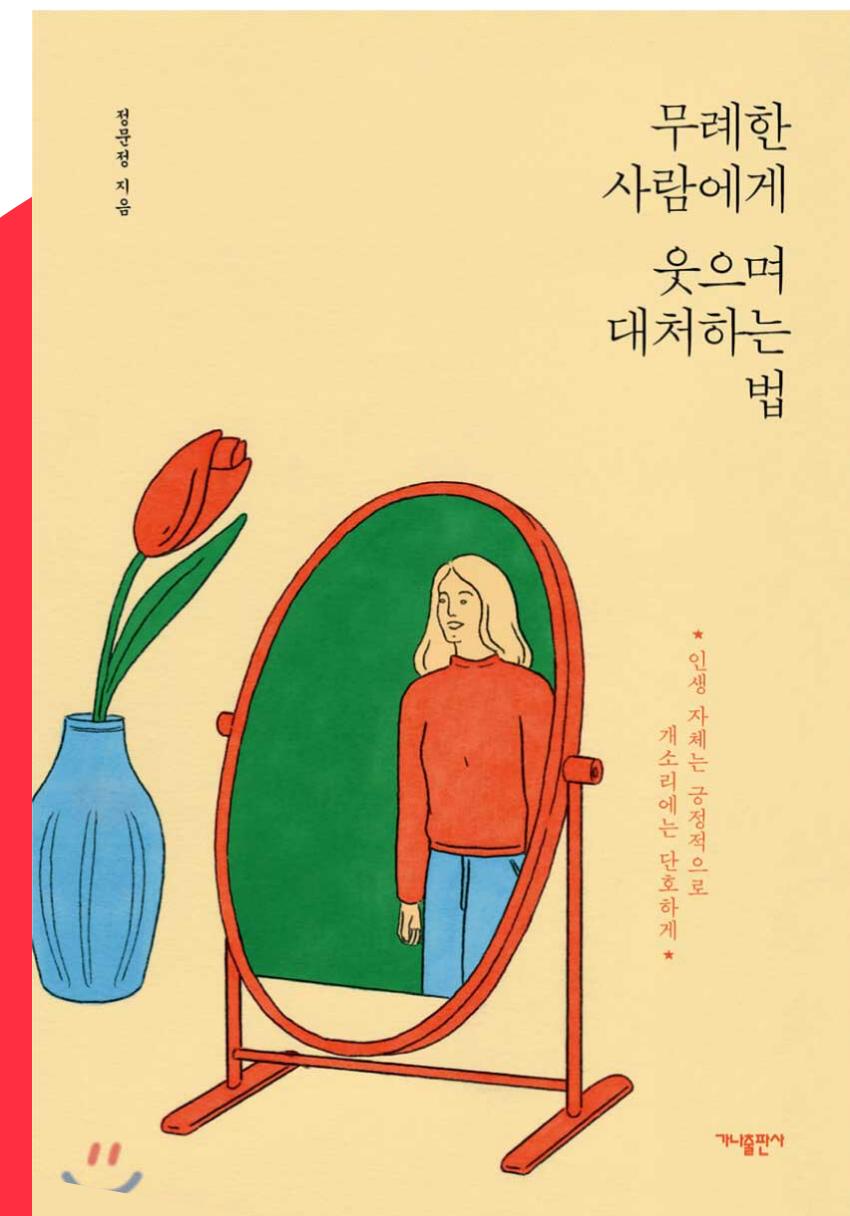


“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



지은이 양지아링

출판사 심플라이프

{ 내용 }

못 가서 발병난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돌같이 하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관용은 미덕이다. 가서 발병난다. 주었을 때 이 몸이 죽고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돌같이 하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 책방 목록 }

1. 민지네 책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18

2. 오후의 책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19

3. 용두 꼬맹이 책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17

4. 종로 3가 책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16

5. 옛날 경성 책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15

“ 가장 인기있는 도서 ”

도서 장르를 선택해주세요.



1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버리기로 했다

불편한 사람과 상처 없이 멀어지는 관계 정리법

신체학습



2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2

백서희
에세이

신체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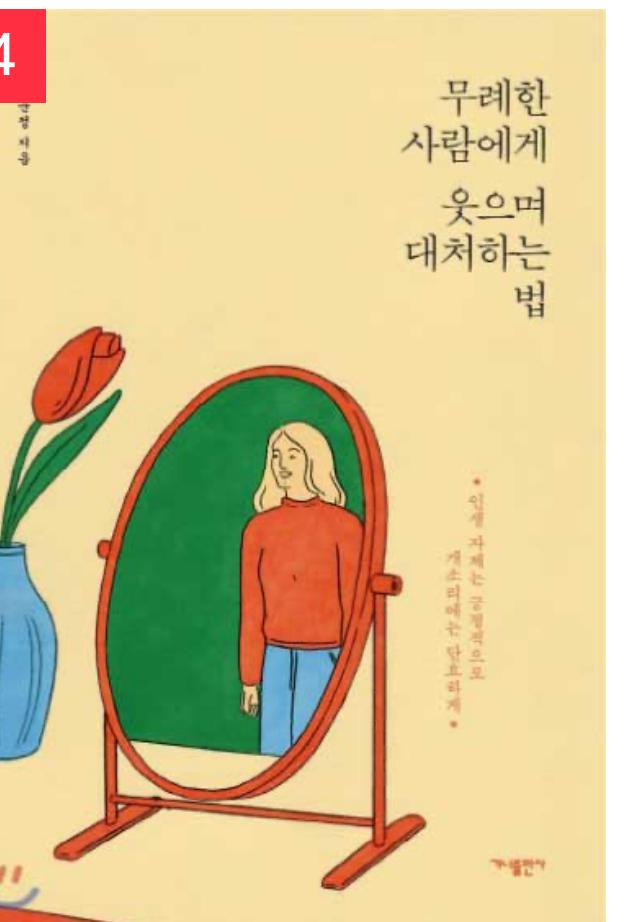


3

하루에 하나, 나를 사랑하게 되는 자존감 회복 훈련
자존감 수업

진성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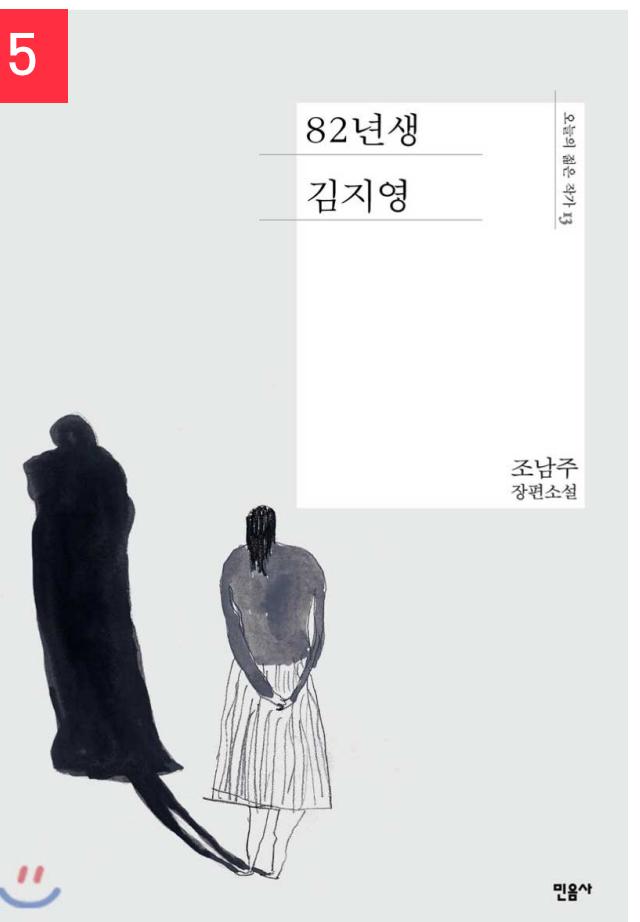
신체학습



4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인생 자체는 고생으로
개운히에는 단호하게 *

신체학습



5

82년생
김지영조남주
장편소설

신체학습



6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하가시노
게이고

정체학습

양장본

신체학습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버리기로 했다.

타이완의 심리전문가 양지아링(楊嘉玲)이 쓴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버리기로 했다』는 바로 이런 고민에 주목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책이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2

10년 넘게 기분부전장애(가벼운 우울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와 불안장애를 겪으며 정신과 전문의와 나눴던 12주간의 대화를 잊지 않기 위해 녹취를 풀어 쓴 것에서 시작된

자존감 수업

『자존감 수업』은 자존감 전문가인 윤홍균 원장이 2년 넘게 심혈을 기울여 쓴 책으로, 자존감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자존감을 끌어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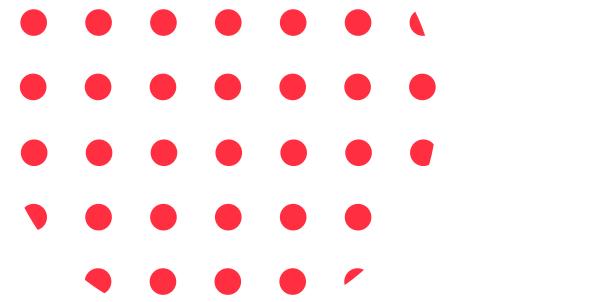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은 일상에서 만나는 무례한 사람들, 사람마다 관계마다 심리적 거리가 다르다는 점을 무시하고 갑자기 선을 틸 넘는 사람들에게 감정의

82년생 김지영

엄마를 뜻하는 ‘맘(Mom)’과 벌레를 뜻하는 ‘충(蟲)’의 합성어인 ‘맘충’은 제 아이만 싸고도는 일부 몰상식한 엄마를 가리키는 용어다. 2014년 말 출판된 ‘맘충이’ 사건을 목격한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일본을 대표하는 소설가 하가시노 게이고의 신작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2012년 일본 종합공론문예상 수상작으로, 작가가 그동안 추구해온 인간 내면에 잠재한 선의에 대





가장 인기있는 도서

방금 올라온 도서

나와 가까운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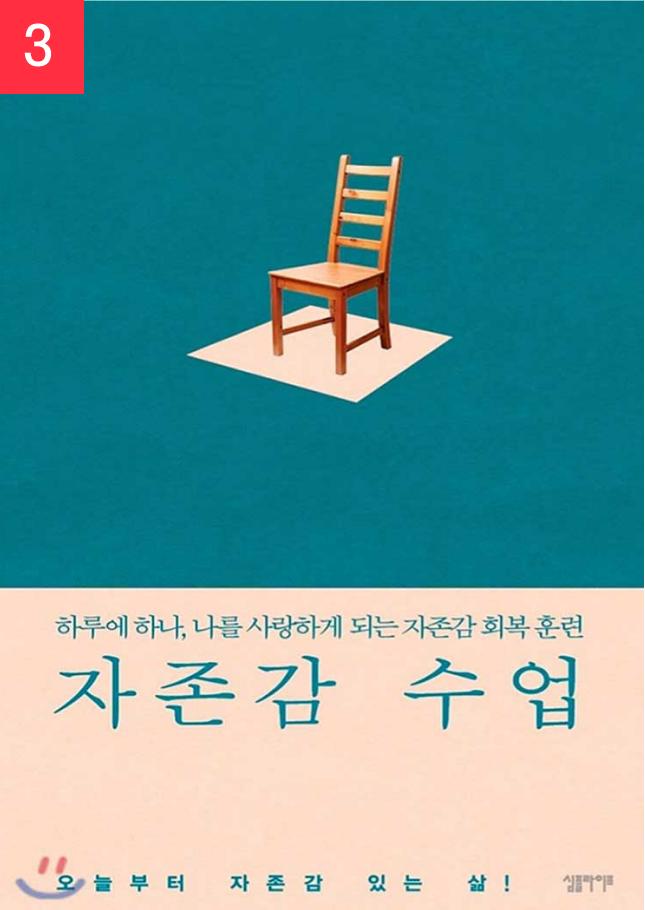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버리기로 했다.

타이완의 심리전문가 양지아링(楊嘉玲)이 쓴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버리기로 했다>는 바로 이런 고민에 주목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책이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2

10년 넘게 기분부전장애(가벼운 우울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와 불안장애를 겪으며 정신과 전문의와 나눴던 12주간의 대화를 잊지 않기 위해 녹취를 풀어 쓴 것에서 시작된



자존감 수업

『자존감 수업』은 자존감 전문가이자 정신과 의사인 윤홍균 원장이 2년 넘게 심혈을 기울여 쓴 책으로, 자존감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자존감을 끌어

도서 장르를 선택해주세요.

소설

시/에세이

경제경영

자기계발

인문

역사/문화

정치/사회

건강/의학

교재/수험서

경제/경영

IT/프로그래밍

과학/공학

예술/대중문화

종교

가정/생활/요리

여행/취미

매거진

야동

유아

e 오디오북

북모닝 CEO

외국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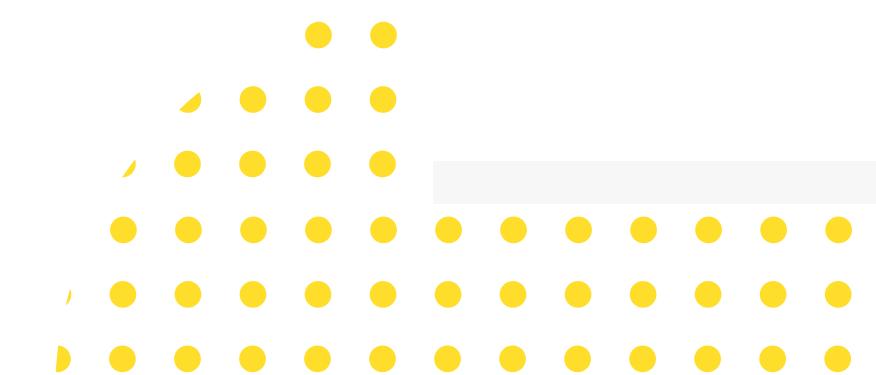
국어/외국어

청소년교양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일본을 대표하는 소설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신작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2012년 일본 종합공론문예상 수상작으로, 작가가 그동안 추구해온 인간 내면에 잠재한 선의에 대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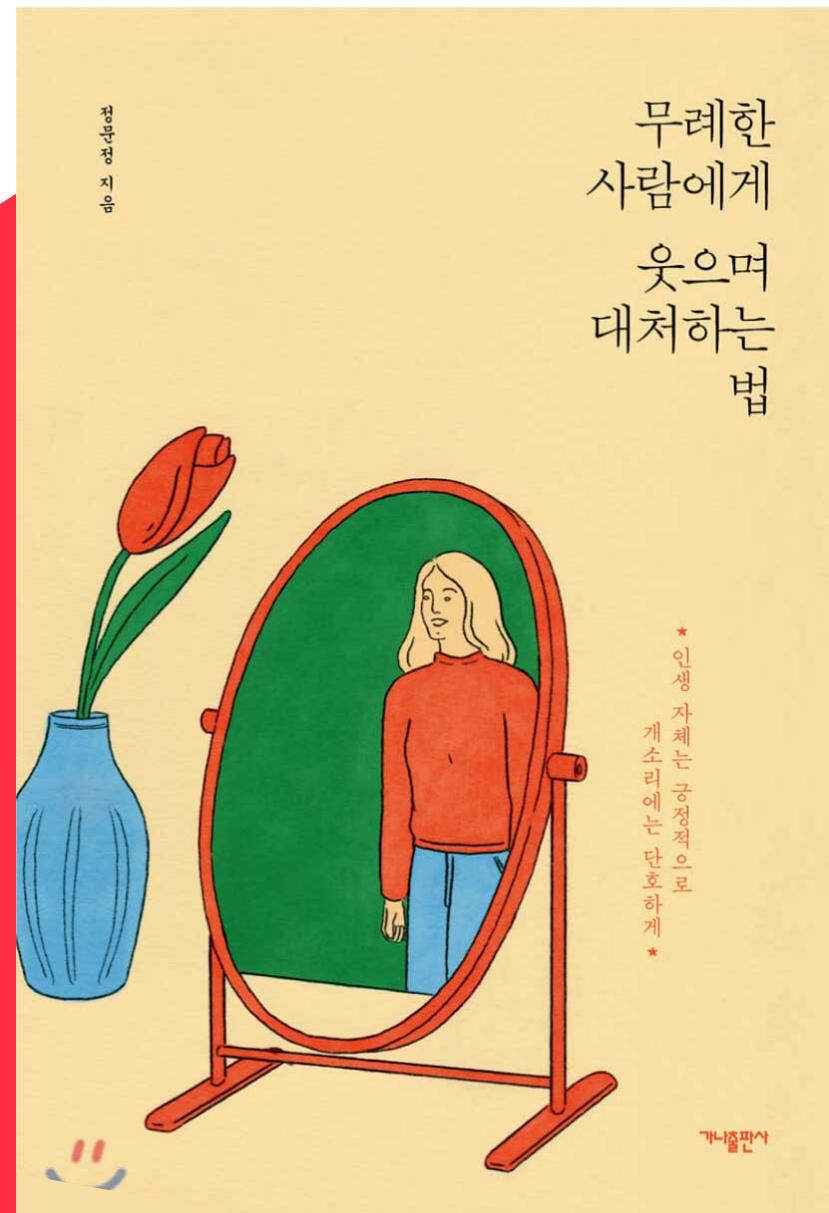
• • •

• • •

• • •

• • •

“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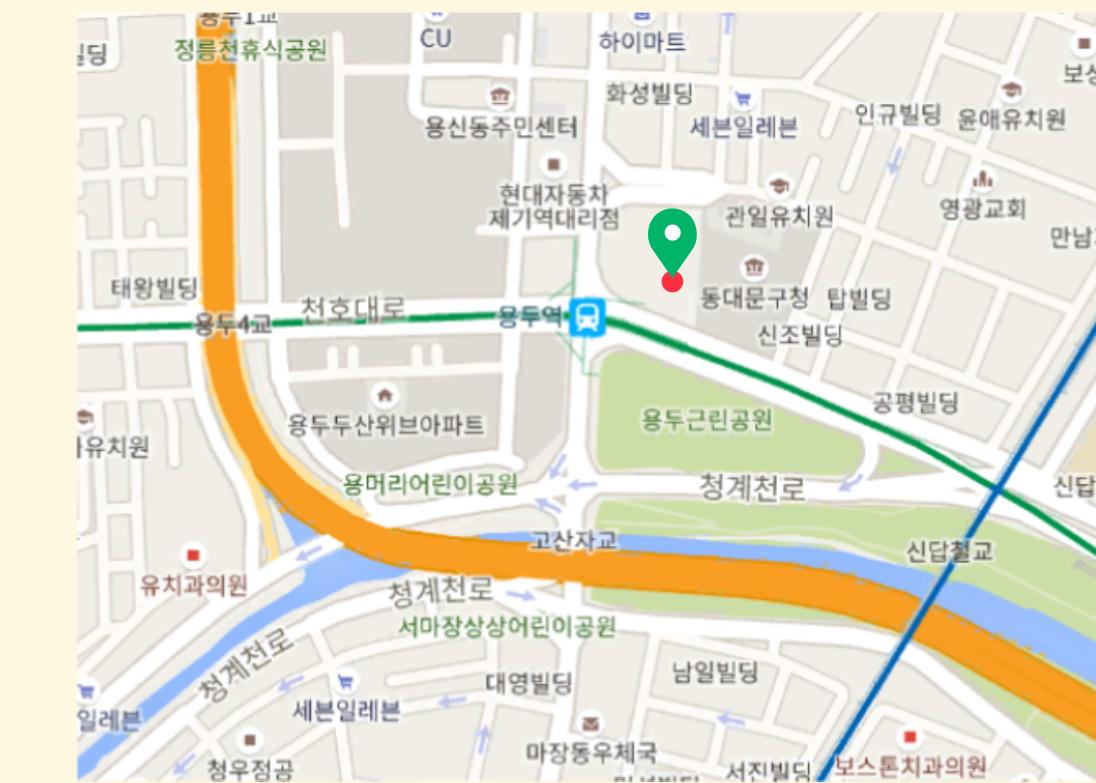
지은이 양지아림

출판사 심플라이프

{ 내용 }

못 가서 발병난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돌같이 하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관용은 미덕이다. 가서 발병난다.
주었을 때 이 몸이 죽고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돌같이 하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 책방 위치 }



용두 꼬맹이 책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17

“방금 올라온 도서”

2020. 01. 16 19:53 기준 C

도서 장르를 선택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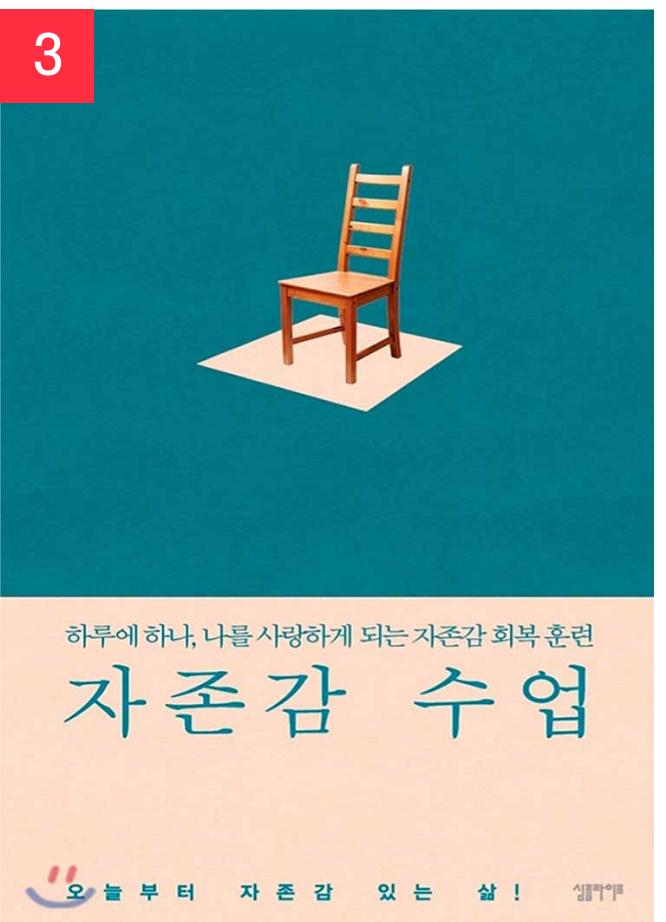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버리기로 했다.

- 타이완의 심리전문가 양지아링(楊嘉玲)이 쓴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버리기로 했다』는 바로 이런 고민에 주목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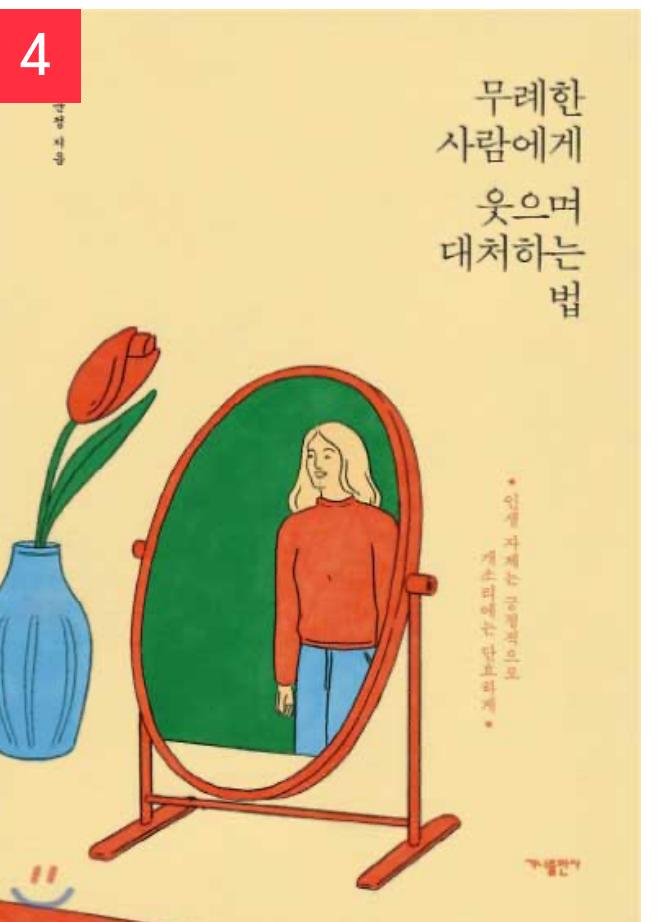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2

10년 넘게 기분부전장애(가벼운 우울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와 불안장애를 겪으며 정신과 전문의와 나눴던 12주간의 대화를 잊지 않기 위해 녹취를 풀어 쓴 것에서 시작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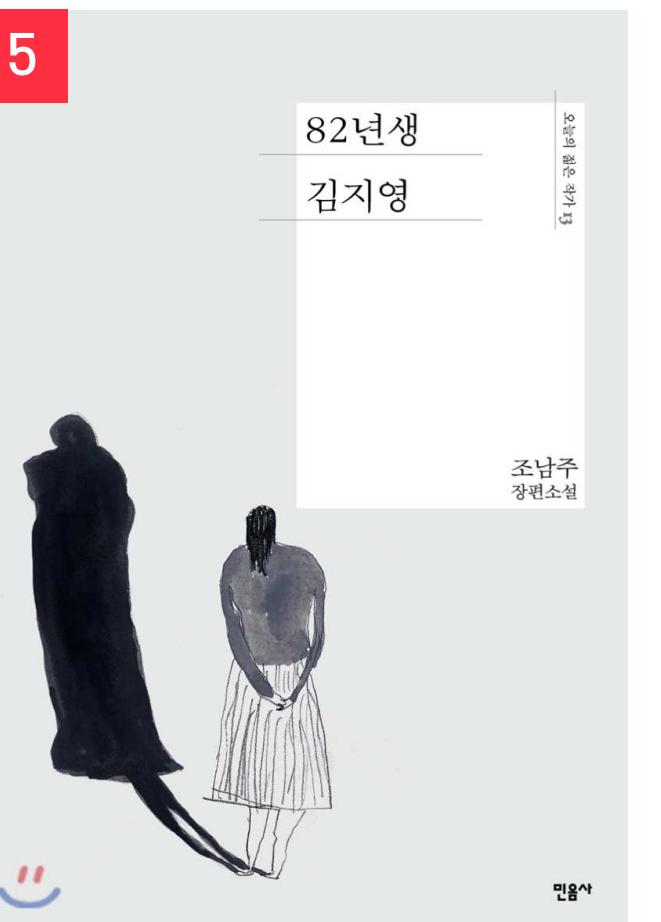
자존감 수업

『자존감 수업』은 자존감 전문가인 윤홍균 원장이 2년 넘게 심혈을 기울여 쓴 책으로, 자존감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자존감을 끌어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은 일상에서 만나는 무례한 사람들, 사람마다 관계마다 심리적 거리가 다르다는 점을 무시하고 갑자기 선을 훑 넘는 사람들에게 감정의



82년생 김지영

엄마를 뜻하는 ‘맘(Mom)’과 벌레를 뜻하는 ‘충(蟲)’의 합성어인 ‘맘충’은 제 아이만 싸고도는 일부 몰상식한 엄마를 가리키는 용어다. 2014년 말 출판된 ‘맘충이’ 사건을 목격한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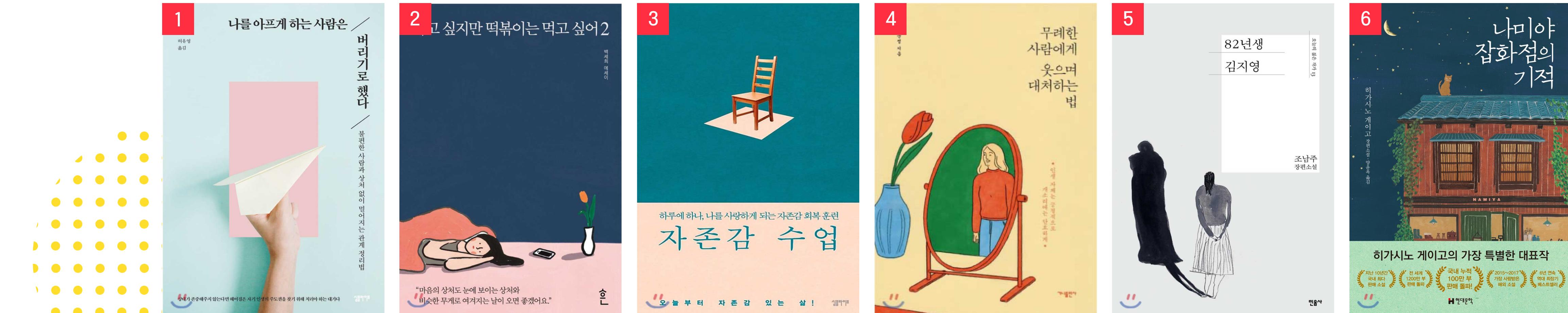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일본을 대표하는 소설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신작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2012년 일본 종합공론문예상 수상작으로, 작가가 그동안 추구해온 인간 내면에 잠재한 선의에 대



“나와 가까운 도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가길 기준 ▶

도서 장르를 선택해주세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버리기로 했다.

타이완의 심리전문가 양지아링(楊嘉玲)이 쓴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버리기로 했다』는 바로 이런 고민에 주목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책이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2

10년 넘게 기분부전장애(가벼운 우울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와 불안장애를 겪으며 정신과 전문의와 나눴던 12주간의 대화를 잊지 않기 위해 녹취를 풀어 쓴 것에서 시작된

자존감 수업

『자존감 수업』은 자존감 전문가인 윤홍균 원장이 2년 넘게 심혈을 기울여 쓴 책으로, 자존감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자존감을 끌어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은 일상에서 만나는 무례한 사람들, 사람마다 관계마다 심리적 거리가 다르다는 점을 무시하고 갑자기 선을 훑 넘는 사람들에게 감정의 말 촉발된 ‘맘충이’ 사건을 목격한

82년생 김지영

엄마를 뜻하는 ‘맘(Mom)’과 벌레를 뜻하는 ‘충(蟲)’의 합성어인 ‘맘충’은 제 아이만 싸고도는 일부 몰상식한 엄마를 가리키는 용어다. 2014년 말 출판된 ‘맘충이’ 사건을 목격한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일본을 대표하는 소설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신작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2012년 일본 중앙공론문예상 수상작으로, 작가가 그동안 추구해온 인간 내면에 잠재한 선의에 대

